



## 브라질 농부들, 엘니뇨로 인해 대두 종자 부족에 직면

### (Brazil farmers face soy seed shortage as El Nino spurs replanting )

종자 회사 Boa Safra Sementes SOJA3.SA의 CEO인 Marino Colp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즌이 시작했을 때 악천후로 콩을 다시 심어야 했던 일부 브라질 대두 농가는 공급업체의 주요 품종이 소진되면서 시장에 종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. 브라질의 콩 종자 부족은 엘니뇨 기상 패턴으로 인한 피해의 가장 최근 사례로, 세계 최대의 유지종자 공급국인 브라질의 콩 재배가 지연되고 브라질의 2024년 두 번째 옥수수 전망이 위태로워졌다. 두 번째 옥수수는 같은 지역에 콩 다음으로 심으며, 특정 연도에 국가 생산량의 약 75%를 차지한다. 엘니뇨는 브라질 중서부를 더욱 덥고 건조하게 만들고, 남부를 더욱 습하게 만들었으며 그 영향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.

한 비료 분석가는 농부들이 기후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옥수수를 덜 경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옥수수 재배를 위한 작물 영양소 수요가 지난 시즌에 비해 둔화되었다고 말했다. Colpo는 일부 지역에서 재배자들이 여전히 콩을 심고 있는데, 이는 12월로서는 드문 상황이며, 마토그로소(Mato Grosso)의 재 파종률이 약 15%로 가장 높았고, 고이아스(Goias), 미나스 제라이스(Minas Gerais), 상파울루 북부의 농부들도 재식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종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 그는 북부 및 북동부 농장에서 해당 지역의 10~15%를 다시 심고 있다고 추정했다. 한 분석가는 11월 폭우로 인해 남부 파라나(Parana)에도 다시 파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.

## 바이든 행정부, 에탄올 업계가 선호하는 SAF 크레딧 방법론 인정

### (Biden administration to recognize methodology favored by ethanol industry for SAF credits)

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생산을 위해, 에탄올 업계가 선호하고 있는 크레딧 접근 지침 관련 방법론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. 수개월 동안 행정부는 에탄올 기반 SAF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후법인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따라 세금 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, 에너지부의 온실가스, 배출 규제 및 기술 에너지 사용(GREET) 모델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분열되어 왔다.

출처: Thomson Reuters